

# “호국·문화사찰로 대흥사 발전을”

## 대흥사 23대 주지 월우 스님 취임... 지역 발전계획 밝혀

해남 대흥사 제23대 주지로 월우 스님이 취임했다. 해남 대흥사는 8월 26일 대웅전 앞에서 회주 보선 스님, 중앙승가대 총장 원행 스님과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전남 지역 교구 본사 주지 스님들과 김영록 국회의원, 대흥사 신도회 김동섭 회장을 비롯한 1000여 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월우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대흥사는 조선시대 선교양종의 대도량으로 서산대사의 호국불교와 초의선사의 다도정신이 계승하고 있는 역사깊은 사찰”이라며 “입적하신 천운 스님의 전법과 하화중생의 원력을 새겨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취임 후 중요 역점사업에 대해 “본사와 각 말사와 협의해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민해 같이 풀어가겠다”며 “기존 템플스테이에 힐링, 요가, 사찰음식 등 특색있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 운영하겠다”고 구체적 지역 포교 방안을 밝혔다. 월우 스님은 “대흥사는 서산대사의 유후

과 호국정신을 계승한 사찰로, 전임 소임자부터 진행한 ‘호국의승의 날’ 지정과 ‘호국대제’ 개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지역사회와 교류를 통해 불교의 사회적 참여를 넓혀가겠다”고 역점사업을 밝혔다.

스님은 또 “지역 신도 대상으로 하는 법회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혼자만의 힘이 아닌 말사와 신도, 해남군 등 함께 변화와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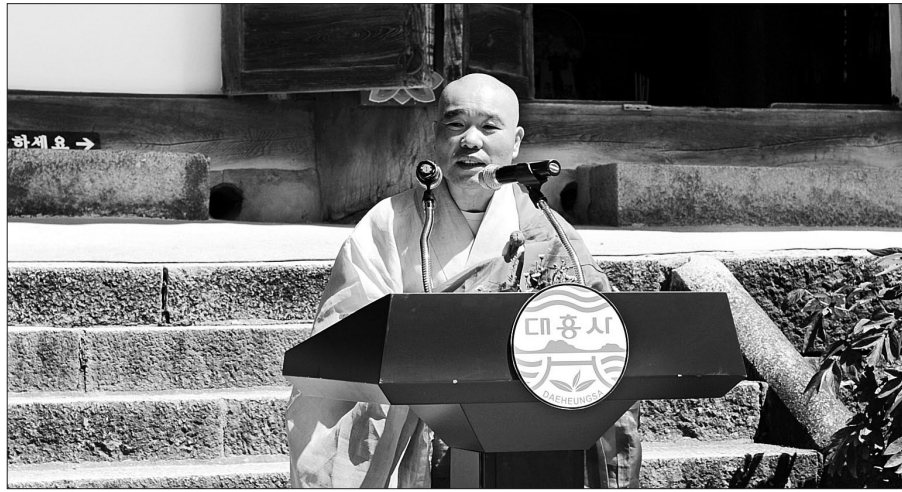
### 문화콘텐츠 개발 방안 밝혀

### 지역 중심사찰 역할 다짐

전에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주 보선 스님은 선종(禪宗) 5조 법연 스님과 제자 불감 스님의 일화를 예로 들며 “주지는 부처님의 법을 이 세상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보호하고 가꾸는 일로 선사의 말을 귀감삼아 대중이 화합하고 열심히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흥사는 해남, 영암, 강진 등 7개



대흥사 주지 월우 스님이 취임사를 밝히고 있다.

군과 광주,목포 등 2개 시에 걸쳐 전체 44개의 말사를 거느리고 있다.

월우 스님은 지난 1978년 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쌍계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학교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행정학 석사와 건국

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조사국장을 거쳐 대원사, 도갑사 주지, 중앙승가대 학교 총무처장, 조계종 4선 중앙총회의원 등을 지냈으며, 현재 사단법인 지구총공생회 감사와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 이사, 인천 국제공항 경찰대 경승위원장 등의 소임을 맡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법지사장

# “베트남 불자들의 마음을 모아요”

## 전북 최초 베트남불자회 창립 ‘화제’

전북지역 최초의 베트남 불자회가 창립됐다. 전북 전주, 김제 등 전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출신 이주민 여성들과 가족으로 구성된 베트남 불자들은 8월 23일 참총은우리절 3층 큰 법당에서 베트남 불자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전북 베트남불자회는 서울과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다. 이날 창립법회에는 광주 원오도량 드영탄스님과 광민스님, 참총은우리절 주지 회일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전북지역의 베트남 출신 불자들과 가족 100여명이 참석해 베트남식으로 진행했다.

베트남불자회 창립은 대부분 불자인 베트남 결혼이주민들이 정상적인 신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이뤄졌다. 사연을 접한 전주 참총은우리절 주지 회일 스님의 주선으로 서울과 광주의 베트남 불자도량인 원오도량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회일 스님은 “불교국가에서 온 이주민들이 종교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찾지 못해 이웃 종교로 개종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이번 창립법회를 통해 전북지역 베트남불자들이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대다수 불교국가출신인 캄보디아, 미얀마 등 전북지역의 결혼 이주민을 위한 법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으로 초대회장을 맡은 흥현주 회장(28세)은 “사찰을 다니고 싶어 하는 베트남 이주민들이 많았는데 전북지역 베트남 출신 이주민들의 법회를 가질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며 “신행 활동을 통해 베트남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트남불자회는 자국출신 불자들의 신행활동은 물론 다양한 교육 문화프로그램을 진행 등 공동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자국인들의 친목도모와 신심고취,

자국스님 초청법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총은우리절 관계자는 “이주민이 160만을 넘어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생각할 때 이주민에 대한 포교, 전법 활성화는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일”이라며 “전북베트남불자회가 바른 신행활동과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보다 아름답고 행복한 다문화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참총은우리절은 관세음보살 입상 점안법회 및 제막식을 봉행했다. 200여 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관세음보살 점안법회에서는 점안 의식에 이어 육법공양, 관세음보살 보문품 독송, 정근, 축원 등이 이어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불교 모연의 현대적 기법 활용”

### 광주불교聯 불교모금 특별강좌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에서 주최하고 빛고을나눔나무에서 주관하는 ‘2015모연(모금)아카데미’가 10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총 6회에 걸쳐 광주NGO센터(상무빌딩 7층) 공동체홀에서 개최된다.

광주전남 불교계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이번 모연강좌는 사찰 및 불교단체 실무자와 체계적인 불사모연에 대해 배우고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마련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이번 강좌를 통해 다양한 단계의 모금성공사례와 전문가들에 의해 검증된 코칭으로 불교모금(모연)의 희망과 미래를 제시할 예정이다. 강의를 맡은 가치혼합경영연구소 김재준 소장은 아름다운가게 정책실장을 지내고 2014 서울시 대외협력보좌관으로 활동했다.

△1주차(10월5일) 불교모금의 개념과 이해 △2주차(10월12일) 모금 계획의 수립 △3주차(10월19일) 기부자의 선정과 조사 △4주차(10월26일) 제안서작성의 요령과 기술 및 제안서작성 △5주차(11월2일) 후원개발 사례 발표 △6주차(11월9일) 후원개발 즉문즉답 등으로 진행된다.

한편, 주관단체인 빛고을나눔나무는 광주불교연합회 부설 비영리단체이다. (062)229-9595 양행선 광주전법지사장

## 전불넷, 제1차 주말 생명평화학교

전북불교네트워크(공동대표 박인순)는 8월 22~23일 전북 고창과 부안 일대에서 ‘제1차 생명평화주말학교’를 진행했다. 전북지역의 초등학생 30여명이 동참한 ‘생명평화주말학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고창의 고인돌유적과 박물관 견학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고창 갯벌, 부안 개암사 탐방 등이 진행됐다.

고창 한정갯벌마을에서 진행된 갯벌체험은 갯벌 생명체인 게, 조개 등을 관찰하며 생명과의 공존과 평화를 느끼는 자리였다.

이어 부안 개암사(주지 재안)에서 템플스테이 명상프로그램을 통해 나를 내려

놓고 우주의 기운을 느껴보는 시간도 가졌다.

재안 스님은 “자연처럼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고 느껴서 집에 돌아가 친구와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나날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유빈(전주 신동초 5)학생은 “절에 오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명상을 하면서 좋은 느낌을 받는 것 같다”며 “다음 2차 프로그램에도 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생명평화주말학교 문화유적 답사는 9월 19~20일 남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완주 송광사, 칠석맞이 문화마당

칠월 칠석을 맞아 아름다운 선율의 클래식 문화마당이 완주 송광사에 펼쳐졌다. 송광사(주지 법진)는 8월 22일 한 여름밤의 클래식 포 유 라는 주제의 문화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아르스노바 남성중창단과 바리톤 김재일, 메조소프라노 백재은의 상악가들과 바이올린 김수연, 피아노 함동균 등 클래식 음악가들이 출연해 무더운 한 여름밤 산사를 찾는 청중들을 매료시켰다.

음악회에는 송광사 회주 도영 스님을 비롯해 수일 팔당사 회주 해광 스님,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 사찰음식 전문가 대안 스님 등 300여 대중이 참석해 클래식 향연에 녹아들었다.

법진스님은 “올해 첫 선을 보인 문화마



당을 통해 모두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앞당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마당 동안 송광사 관음전에는 사찰음식 전문가 대안 스님 초청 연(饌) 음식 전시회가 열렸다.

송광사의 연밭에서 생산된 연꽃과 연잎을 재료로 12가지의 연 관련 사찰음식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국립광주박물관 ‘담양’ 특별전

용흥사 동종(보물 제1555호)을 비롯한 담양의 문화와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개최된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은 담양군과 공동으로 특별전 ‘담양’을 8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개최한다.

담양은 수많은 누정과 원림을 무대로 면앙정 송수를 비롯하여 송강 정철, 석천 임억령 등 수많은 문인들에 의해 국문학사에 길이 남을 주옥같은 작품들이 탄생된 한국 가사문학의 산실이다. 또한 ‘한반도의 대숲’으로 불릴 정도로 대나무와 죽제품이 유망한 담양은 잘 가꾸진 대숲과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많은 이들에게 훌륭한 안식처를 제공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는 국립광주박물관이 남도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남도문화전> 시리즈의 여섯 번째 전시로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담양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정리·소개한다. 이번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는 전시 도입부로 ‘자연과 사람’이

주제다. 담양의 자연 및 인문지리적 환경과 역사·문화의 흐름을 사진, 지도, 연표 등으로 일목요연하게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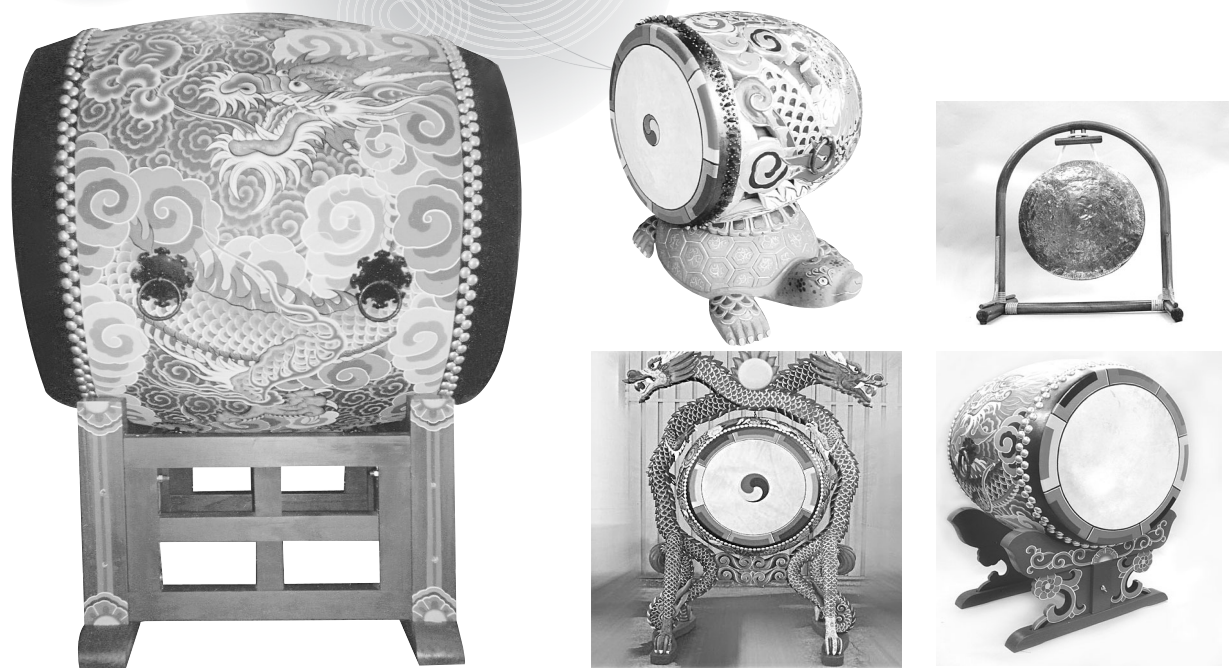
2부는 고고학적으로 ‘선사와 고대’ 문화를 다룬다. 수북면 풍수리유적 등에서 확인된 텍스트로 1~2만 년 전 인류의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다.

3부는 ‘중세와 근세’ 문화로 관공·생산유적, 불교문화, 유교문화, 누정과 가사문학으로 나누어 전시한다. ‘불교문화’ 부분에서 용흥사동종(보물 제1555호)을 비롯하여, 용흥사 등 담양지역의 고찰에서 간행된 불교서적으로 담양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된 불교문화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불조역대동제(보물 제737호) 등 용흥사의 목탑스님 자료 가운데 정수를 뽑아 출품된다.

4부는 ‘근대와 현대’ 분야로 담양의 인물, 근대교육, 문학, 미술로 구성하였다. 의병장 녹천 고광순, 고하 송진우, 춘강 고정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담양을 빛낸 인물들을 조명한다. 양행선 광주전법지사장

#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www.hyunbulshop.com

희담석 지킴이염주 세트  
직경 8mm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mm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mm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무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나습니다.